

# 학교 짓기 12년 '구슬땀'



김재령 씨(사진 가운데)는 제3세계 국가에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학교를 지으며 10여년 동안 자원봉사를 해왔다. 사진은 캄보디아 소수부족 아이들과 학교 공사의 첫삽을 뜨는 장면.



2003년 아프가니스탄 긴급 구호 당시 겨울옷과 담요를 지원하는 김재령씨.



2010년 인도불가촉 천민지역 우물공사를 마치고 주민들과 함께 환호하고있다.

한데 좋은 일인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음적으로는 스스로 우쭐해지고 일에 있어서는 매너리즘에 빠진 건 아닐까 돌아보게 되었죠.”

김 씨는 꼬박 13년 청춘의 시간을 쏟아 부은 정도회를 나오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막상 다른 일을 하려니 마흔살이 넘어서 갈 수 있는 곳은 공장뿐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NGO쪽 일보다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며 찾아간 곳이 부모님이 계시는 대구 인근 공장이었어요. 처음에는 주물공장의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일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자 일감이 없더라 직원들을 정리하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자가 저는 성실하게 일하니 계속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다른 누군가는 해고를 당해야 한다는 뜻인데 나 살겠다고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물공장을 그만두었어요. 이후 섬유공장을 다녔는데 그곳은 고급 옷감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의 화학약품을 사용했어요. 환경오염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 무렵 JTS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캄보디아에서 학교를 짓고 있는데 현장의 어려움이 많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이 온 것이다. 그는 주저 없이 공장을 그만두고 다시 국제구호활동가로 나섰다. 캄보디아 현장에 가니 실무자

와 주민들과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학교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마을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공사를 재기했죠. 1년 남짓 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3개의 학교를 완성한 뒤 이후 2개를 더 짓고 왔죠. 공사가 끝난 뒤 마을 잔치를 하며 주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너무 뿌듯했죠.” 일이 마무리 되자 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공장을 가는 대신 국제구호활동가의 경험을 살린 일들을 찾아나섰다. 학교와 NGO 단체 등의 강의를 물론 인도에서 돌아온 이후 SNS에 실린 글을 엮은 <나는 작은 사람>을 8월 출간했다.

“출판사 사장님께서 제 글을 보시고 출판을 한번해보자고 하셨어요. 세월호로 인해 지친 우리 국민들을 위로해주고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 거라 말하셨죠. 이런 이유로 제 글이 이번에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팔릴지 알 수 없지만 인세가 생긴다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무엇을 할까만 고민하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지 않아 걱정이라는 그는 앞으로도 낮은 곳에 있는 작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 탈핵도보순례, 세월호참사 집회 등 사회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활

동하는 그이기에 앞으로 3세계 노동자, 이주민, 소외계층, 여성노동자 등 사회의 약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제 3세계 노동자들이 한 달을 꼬박 일해도 100달러 받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쓰는 값싼 제품들이 제 3세계 노동자들의 노동력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미안할 뿐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지고 있는 셈이에요. 저는 그들을 돕는다는 생각보다는 세상에 진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을 이 사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모색해 꿈과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모임을 만들 생각입니다.”

건축 노동을 하는 인도 불가촉천민 지역 주민들에게 “당신들이 하는 일이 의사나 교사만큼 중요한 일이다. 당신들이 이 일을 안 하면 어찌 그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냐”며 늘 자부심을 심어 주었다는 김재령 씨. 세상 모든 존재는 존귀하며 모두의 삶은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인도 불가촉천민들의 삶도 이주노동자의 삶도 소외계층의 삶도 모두가 존귀하다. ‘작은 사람’ 김재령 씨는 그들의 존귀한 삶을 그 자체로 밝혀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낮은 곳을 향해 걸어나간다.

정혜승 기자 bjwjs@hyunbul.com

## 전법일기

### 어려운 이웃 위한 마라톤 수행

부처님은 달리라고 설법하신 적이 없다. 하지만 극한의 고통을 반복하며 달리기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한 수행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제일 잘하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마라톤이 어디 쉬운 운동인가. 새벽 2시, 굵아 굵아 이어진 깊은 산골을 달리다 보면 간혹 전봇대가 내게 다가오기도 하고 발을 헛디뎠다 아슬아슬할 때가 있다. 졸음이 밀려들면서 환각상태가 찾아오고 앞이 보이지 않아 어지럼증도 도진다. 발은 물집이 잡혀 엉망이다. 한 발 디디기도 어려운 몸을 끌고 끌개지 완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버티는 순간이다. 졸음이 몰려들면 허벅지를 꼬집고 뺨을 때리기도 하면서 달린다. 정말 이렇게까지 달려야 하나 싶어 눈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랐다. 그렇게 모아진 사람들의 관심을 국내에서 소외된 사람에게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일본에서는 황거(皇后)공원에서 출발,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까지 왕복 1000km를 완주했다. 2013년 한독수교 130주년, 파독광부 50주년을 맞아 독일의 옛 수도 본에서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까지 700km를 달렸다. 남의 나라까지 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달리기를 멈추자는 의견도 있었고 차를 타고 이동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나는 달려야만 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녹록치 않은 삶, 소외받는 이들을 생각하며 달리는 것이 답이었다. 그 거리를 완주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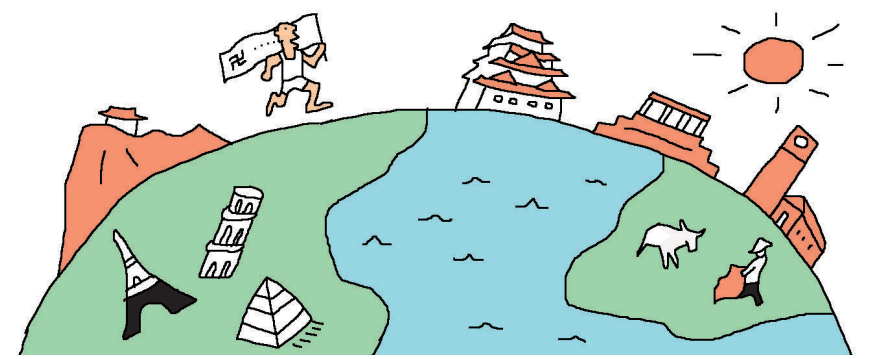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이 속구칠 때가 있다. 맨살을 드러내는 일을 금기시하는 보수적인 불교계에서는 마라톤복을 입고 뛰는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저런 소문을 들으셨는지 하루는 내게 법명을 내려주시는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팬티만 입고 뛰더라. 앞으로 그러지 마라” 격정의 말씀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승려라 해도 승복을 입고 장거리 마라톤을 할 수는 없었다.

여러 어려움에도 보람을 느끼고 있다. 먼저 승복 입고 깊은 산중에 있어야 할 스님이 속세로 나와 달리기를 하니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다. 사찰을 지을 때도, 여러 사람의 손길과 정성이 모일 때 더 좋은 의미를 갖는다. 한 사람이 10여원을 내서 짓는 것보다 열 사람이 1억씩 내서 짓는 것이 낫고, 그 보다는 1000명이 100만원씩 내서 짓는 것이 낫다. 더 나아가 1만명이 적은 돈을 모아 사찰을 짓는다면 더 무량한 공덕이 쌓이는 것이다. 좋은 마음들이 모여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가 컸다. 나는 사람들이 ‘스님이 왜 달릴까’에

자면 설 말이 없었다. 하지만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몸은 힘들어도 역시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베트남에서 ‘해우소 108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베트남에서 마라톤을 할 때는, 한 손에는 태극기를 한 손에는 베트남 국기를 들고 달린다.

그 때 현지인들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한다. 자신들도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했다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다. 그 중 어떤 이들은 현지에서 마라톤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한국에서 보다 먼 타국에서 더 큰 관심에 다시 힘이 나곤 한다.

베트남에는 베트남전 상처뿐 아니라 라이파이한과 결혼이주여성 문제로 현지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나의 마라톤을 통해 조금이나마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이를 통해 양국관계가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진우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 구미 대문사 주지)



## 국제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멋있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바랍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깨(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는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 및 인간방생에 많은 일을 하신 성스러운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풀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총무위원장서리 지암 부위원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총회위원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광, 법산, 자명, 휴암, 종암, 금산, 여승,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011-229-6061